

2023. 6. 12. (월) 10:00

북구의회 본회의장

-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회 정례회 -

구청질문 답변서

구분	질문내용
제목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강진희 의원]
질문1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한 근거는?
질문2	체육강사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는?
질문3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 심의를 하기 전 체육강사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는지?
질문4	현재 이사장의 인사는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이 있음.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질문5	수영강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울산광역시 북구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제11항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단 운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체육강사의 강습 실태 및 문제는
체육센터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약해지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질문 1 답변 완료)

(※ 질문 2 질의)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월 21일, 해당 강사가
오전 11시 강습반 수업 시간을
수 십 차례 미 준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것을
해당강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소명 확인이 없었으며
또한, 5월 3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해당 강사는 당일 이사회 참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강사에게
자료 제출 및 CCTV 영상 공동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였으며
CCTV 확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종 5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해당 강사는
10번 이내로 축소 수업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계약서 제9조 계약해지 조항
가항 ‘공단과 사전상의 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잦은 휴강 등으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의 복무 책임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해당강사의 계약해지가 의결 되었습니다

(※ 질문 2 답변 완료)

(※ 질문 3 질의)

3.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은
현 계약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회 의견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설관리공단과 강사와 2회에 걸쳐
계약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 3 답변 완료)

(※ 질문 4 질의)

4.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주의회에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

구청장이 2명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의 응시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최종 2명을 추천하였으며,

그중 상위 득점을 받은 현재 이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임원 추천위원회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 4 답변 완료)

(※ 질문 5 질의)

5.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의 계약해지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단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현재 공단에서 강사들과 계약서(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시설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